

한-말레이, 양국간 3대 경제협력 방안 제시

비즈니스 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사회 인프라 조성 협력
할랄 시장 공동 진출 등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호텔에서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 말레이시아와의 경제협력' 주제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포럼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시장 창출 및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지지해준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의 발언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말레이시아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 대응 ▲사회 인프라 조성 협력 ▲할랄 시장 공동 진출 협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 경제 협력 방안을 제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탄스리 다투 등 120여명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첨단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차 개발, 스마트시티 구축 등 미래 산업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환경보호 및 수자원 관리, 에너지전환·에너지효율 강화, 의료시스템 협력을 통해 사회 인프라 조성을 위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이 강점인 한류와 할랄

을 접목해 글로벌 할랄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자고 제시했다. 환영사로 나선 페리옹 압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은 외환위기 극복의 탄원한 탄력성을 갖고 있고 (한국의 사례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반등했는지 등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한류를 분석할 때 한국의 창의력과 기술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부영했는지 관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여러 면에서 한국과 다르지 않다"며 "양국 간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유대감이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환영사에서 "양국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의 좋은 출발점"이라며 "올해 양국 FTA가 타결되도록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기업인을 만나 힘쓰겠

다"며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합작회사 만들어야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자리에서 체계적인 솔루션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 다툰 이그나티우스 다벨 레이킹 말레이통상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말레이는 한국을 답습하고 싶다"며 "한국은 아세안+3 회원국이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경제 블록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120개사, 200여명의 한국 측 경제사절단이 참석했다.

경제인으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송대현 LG전자 사장, 구자열 LS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김태형 GS글로벌 대표이사 등이 함께 했다.

또 경제·기관단체 참석자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말레이시아 측에선 페리옹 압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데렐 레이킹 통상산업부 장관, 기업개발부·경제부·환경기후변화부 장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발대식

위원장에 최영일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을지로위원회 발대식이 14일 오후 2시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당 장영국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최영일(전북도의원) 위원장, 정호운 전북도의회 문화건설 안전위원장, 김대오 예결위원장, 나인권 도의원, 이원택 정무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도에 구성된 이후 '甲' 횡포로부터 '乙'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을 추진하며 사회 전반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는 역할을 추진해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민생관련 상설위원회다.

을지로 위원회는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기술 유용과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乙'에 대한 관심과 충분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 구성원간의 대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일 전북도당 을지로위원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甲'의 횡포로 고통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을지로위원회야말로 이런 사회적 병폐를 척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전북지역에서 '甲, 乙'이 아닌 상생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KT 1차 합격자 명단에 김성태 딸 없었다

검찰, 前 KT 전무 구속...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 절차 어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KT 전무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3일 열렸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하면서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 딸의 이름이 1차 전형인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인사 실무를 담당한 김씨의 부하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약탈경제비대행동과 KT새노조

는 서울중앙지검에, 민중당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은 관할 문제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 본사, KT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뉴시스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하반기부터 입법 절차 진행"

"공무원 중심 법 적용... 개별 입법에 조금 더 무게"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올해 하반기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본격적인 입법 추진 과정을 밝혔다.

김상권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이날 박은정 위원장 주재의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학술단체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상반기 중에는 (정부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도는 2013년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장시간 논의 결과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지고 금품수수

와 청탁금지 등만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3개의 개정안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포함시키지는 안, 별도의 입법으로 가지는 안 등 약 4가지 정도가 있다"며 "국회에서 잘 논의 돼 의원 입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권익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3개의 개정안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포함시키지는 안, 별도의 입법으로 가지는 안 등 약 4가지 정도가 있다"며 "국회에서 잘 논의 돼 의원 입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권익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 이해충돌방지제도까지 포함한 청탁금지법을 국회로 보냈을 때에는 (적용 대상은) 공직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는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는 빠지고 정부부안에 없었던 사학과 언론이 거거(대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좁은 의미의 공직자, 즉 공무원 중심으로 이 법의 적용범위를 삼는 것이 법의 집행력에 있어서도 담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저희 권익위로서는 좁은 의미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개별 입법으로 한다는 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도는 2013년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장시간 논의 결과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지고 금품수수와 청탁금지 등만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3개의 개정안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포함시키지는 안, 별도의 입법으로 가지는 안 등 약 4가지 정도가 있다"며 "국회에서 잘 논의 돼 의원 입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권익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도는 2013년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장시간 논의 결과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지고 금품수수와 청탁금지 등만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3개의 개정안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포함시키지는 안, 별도의 입법으로 가지는 안 등 약 4가지 정도가 있다"며 "국회에서 잘 논의 돼 의원 입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권익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도는 2013년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장시간 논의 결과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지고 금품수수와 청탁금지 등만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3개의 개정안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포함시키지는 안, 별도의 입법으로 가지는 안 등 약 4가지 정도가 있다"며 "국회에서 잘 논의 돼 의원 입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권익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도는 2013년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장시간 논의 결과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지고 금품수수와 청탁금지 등만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3개의 개정안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포함시키지는 안, 별도의 입법으로 가지는 안 등 약 4가지 정도가 있다"며 "국회에서 잘 논의 돼 의원 입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권익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